확실한 목표의식으로 사명 다하길 …

봄내음 물씬 풍기는 5월!
화학저널의 창간 10주년을 마음깊이 축하합니다.
잠들었던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화려한 여름을 준비하듯 국내 유일의 화학관련 전문지인 화학저널도 신음하고 있는 국내 산업이 화려한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.

작금의 한국경제는 산업의 중복투자로 국가경제 손실은 물론 국제경쟁력 약화로 수출부진, 내수침체 등 총체적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.
어차피 우리 경제는 과감한 개혁과 변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.
특히, 석유화학산업을 포함한 화학산업은 기초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사양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.
이런 점에서 10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국내 화학산업과 동고동락을 함께해온 화학저널의 역할이 크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.
과거에도 그래왔듯 화학저널이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석유화학기업과 수요기업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공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.
다시 한번 화학저널의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박종우 원장님을 비롯 화학저널에 몸담고 있는 기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2001년 5월 17일
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국노

<화학저널 2001/5/28>